

— Sun-61 —

간접흡연으로 유발된 호흡성 세기관지염-연관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증례

고려 의대 내과학 교실

이경주*, 정진용, 김세중, 이승현, 이은주, 허규영, 정혜철, 이승룡,
김제형, 이상엽, 신철, 심재정, 인평호, 강경호, 유세희

서론

간질성 폐질환중 호흡성 세기관지염-연관 간질성 폐질환(Respiratory bronchiolitis-associated interstitial lung disease, RB-ILD)은 현재 혹은 이전에 흡연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병리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특징적인 비교적 드문 질환이다. 다른 간질성 폐렴에 비해 예후가 좋고 금연 및 부신피질 호르몬에 대해 양호한 치료 경과를 보이는 질환이다.

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RB-ILD는 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본원에서는 흡연경력이 없는, 간접흡연에 노출된 54세의 여자 환자가 기침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VATS를 시행한 결과, 조직 검사상 호흡성 세기관지염-연관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증례가 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

54세 여자 환자는 과거력상 흡연한 경력이 없으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된 자로 내원 3개월 전부터 쉰 소리, 호흡곤란 및 기침 지속하여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기관지 천식 의심 하에 6개월간 치료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시행한 흉부 x 선상 미세한 망상 및 결절성 음영이 관찰되었으며, HRCT상에서 간질성 폐질환 의심되어 조직검사 위해 입원하였다. 환자는 FANA, ANCA, RF 모두 음성으로, 환자는 VATS로 시행한 폐 조직 검사 상에서 호흡세기관지내에 macrophage의 침착 관찰되고 벽의 섬유화변화와 만성염증소견 보이며 세기관지 주위의 alveolar duct와 alveoli에서 cuboidal cell hyperplasia도 관찰되어 호흡성 세기관지염-연관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되었다. 환자는 호프집을 그만 둔 이후에 기침 및 호흡 곤란의 증상 호전되어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.

— Sun-62 —

급성 간질성 폐렴의 양상으로 개흉폐생검을 시행한 primary influenza viral pneumonia 2예

순천향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호흡기-알레르기 내과

박종숙, 임건일, 어수택, 김용훈, 박춘식

Influenza는 influenza A형 또는 B형에 의한 감염으로 유발되는 급성 발열질환이다. 대개는 self-limited로 3-4일 정도면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만,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폐렴이 올 경우 진단에 유의해야 하며 일차적인 바이러스 성폐렴의 경우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저자들은 본원에서 간질성 폐렴의 양상으로 내원하여 개흉폐생검 및 혈청검사를 시행하여 influenza A형에 의한 원발성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단된 2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1:41세 남자환자가 5년전 우측폐의 bullae를 진단 받은 것외에는 건강하게 지내던 중 내원 3일전부터 기침이 있고, 2일전부터 호흡곤란과 기침, 피섞인 가래가 생기고, 야간 발한으로 내원하였다. 내원시 grade IV-V의 호흡곤란 및 발열과 기침시 흉통이 있었다. 폐청진상 호흡음은 양 하폐야에서 기관지 호흡음과 rale이 들렸고, 우상폐야의 호흡음은 감소되어 있었다. 검사소견에서 백혈구수증가, influenza A/Yamagata/88/H1N1에 1:128의 titier로 양성을 보였다. 입원 후 마스크를 통해 고농도산소를 투여하였고, 6일째 진단을 위해 개흉폐생검 시행 후 보존적 치료로 증세 호전되어 퇴원하였다.

증례2:72세 남자환자가 과거 7년전 위궤양천공으로 수술받았고 및 6년전 가을로 치료받은 것외에는 특별한 병력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중, 입원 5일전부터 발열과 오한, 기침, 가래로 타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내원 2일전부터 호흡곤란 및 점액성 가래와 백혈구 감소, 저산소증으로 전원되었다. 급성 병색 및 양폐야에서 라음이 청진되었다. 검사소견에서 백혈구수 감소(ANC498/mm³), influenza A/Kitakyushu/H3N2 및 B/Bangkok/163에 대해 양성을 보였다. 입원 4일째 골수검사를 시행하였고, 입원 5일째 개흉폐생검을 시행 후 입원 15일째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며 치료 중 사망하였다. 위 2예에서 개흉폐생검은 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점액성 유리질 간질, 폐포벽의 섬유화성 비후, 폐포 내 염증세포의 삼출 및 침윤 등의 viral pneumonia의 소견을 보였다.